

## 7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0. 7. 24.(금)

### ■ 주요 회의 내용

#### ▲ 정윤식 위원장

- 박원순 시장 사체 발견 특종 보도 10일 0시 38분부터 47분까지 특종 보도, <박원순 서울 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YTN은 5분 후 <박원순 숨진채 발견> 자막, JTBC는 0시 50분 보도, 지상파 방송사는 이 시간대에 전혀 보도하지 않음, 목침 지뢰 사건 당시 <2+2> 남북 대표회담 이후 연합의 특종 사례, 다른 언론사의 보도 시점,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홍보용 사례 모음으로 체계화, 보도 시점, 보도 내용 모두 다른 방송사와 비교하여 탁월했음, 장시간 두 명의 앵커와 신새롬 기자가 후속 보도 및 해설을 하였고 국민적 관심사가 팽배한 시점에서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를 확실히 높였다고 생각함, 지상파방송은 곧 증명했는데도 연합과 YTN은 장시간 보도 및 해설을 하였음, YTN보다도 보도 시점, 해설 내용과 길이에서도 앞섰다고 평가함
- 빅이벤트 보도에 강한 회사의 경쟁력과 장점을 강화하는 한편 특종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보도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600일 남은 차기 대선지형도(19일 16:36-16:42, 여의도풍향계, 박초롱기자), 대선판 지각 변동 '대세론 이낙연, 추격자 이재명' 등 압축적이며 함축적인 기사 리드(제목)로 시청자의 주목도를 크게 높였음
- 즉 '화려한 추상어'(glittering generality)와 낙인찍기(Name Calling)기법을 활용한 제목 불이기에 성공,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하여 다른 기사들도 전반적인 제목과 리드를 '화려한 추상어'와 '낙인찍기 방법'을 활용하여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과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기사 및 보도가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과장이나 왜곡은 배제해야 하겠지만 시청자의 주목도와 집중도를 높이는 일목요연한 리드의 개발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임, 보도 내용도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대선가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음, 정치인, 정치 평론가 및 전문가, 시민들의 들의 인터뷰 등도 활용하여 추후 특집 프로그램으로 확대해도 바람직 할 것임
-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20일 00: 25-) 최근 연합뉴스 보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른바 옴부즈맨 프로그램임, 전반적으로 옴부즈맨이나 출연진 기자들의 설명이 빠른 편이라 내용을 숙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움, 시간에 대비해 내용이 많은 편임, 특정사건이나 팩트(Fact), 회사의 기사 및 보도, 시청자평가원의 평가 등이 혼재되어 있어 잘 구분이 안됨, 시청자평가원이나 옴부즈맨 (캠퍼스 TV 리포트 포함)의 의견에 대한 회사의 반론이나 설명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방송시간도 밤시간이며 빠른 속도로 내용이 전달되어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느낌,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시청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책임>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 개선방향 제언 시간대를 타 방송사와 같이 금요일 오후 낮 시간 정도에 편성, 아이템 수를 줄이고 회사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회사측의 불가피한 취재상의 애로 등도 제시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구함, 프로그램 시간, 참여 옴부즈맨 수도 확대하여 <시청자 중심 방송>이라는 대외 이미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존재 증명>, <시청자와의 약속>, <설명책임>, <공적 책무>, <시청자 캠페인>, <시청자 이벤트>, <시청자 참여>등에 대한 성과 및 자료를 집대성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19 캠페인, 국가와 기업과의 상생, 규제샌드박스 등이 주요 이슈임 국민, 소비자가 이슈에서 빠져 있음: 즉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시청률 조사 제언, 개인적 의견이지만 동네 목욕탕, 대중 음식점 등 다중시설에서는 지상파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 보다도 연합뉴스TV나 YTN 시청이 압도적인 것으로 보임, 최근에는 YTN 보다도 연합뉴스TV 뉴스 보도가 다중시설에서는 시청률이 확실히 높은 것으로 보임, 시청자위원 개인의 의견으로 전체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다중시설 시청률이나 시청형태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 가구 시청율과 다중시설 시청율은 그 가중치가 다를 것임으로 이를 반영하는 계량적 방법을 조사기관과 협의할 필요도 있을 것임

#### ▲ 박성용 위원

- 7월 20일 이후 수돗물 유충관련 방송이 계속되었음, 수돗물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됨. 따라서 국민들은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음, 그러나 연합뉴스TV에서는 유충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사항(궁금한 점)에 대한 심도 있는 방송이 없었음, YTN에서는 7월 21일 "수돗물 유충 불안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전문가 1인을 모시고, 유충(깔다구)의 특성, 서식지, 인체영향, 외부유입가능성, 인체유해가능성 등에 대하여 방송함

- 일기예보 방송 배경화면이 너무 적음, 일기예보 방송의 배경화면이 너무 적어, 기상캐스터의 위치에 따라 배경화면을 벗어나는 공간(오른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TV화면이 검은색으로 나옴, 기상캐스터의 눈과 손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음, 기상캐스터가 지역별 등에 대한 기상내용을 설명하면서 바라보는 눈의 방향과 손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7월 5일(일) 19:20~19:45 사이에 연합뉴스 TV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반복되는 아동학대,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방송내용은 지난 달 아동학대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는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함, 특히, 일요일 동 시간대는 프라임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아닌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송이어서 매우 좋았음

- 7월 22일(수) 21:20 분경, "수돗물 피해 집단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증권분야에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할 수 없음. 용어선택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무기 사용은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거의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인체에 해로울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무기 사용관련 화면이 지속적으로 방송됨. 분무기 사용관련 화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 박성복 위원

-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부터 우리는 매일 추가 확진자, 누적확진자, 사망자가 몇명이라는 보도를 연일 접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점점 가중되는 심리적 위축감 등 소위'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외에 서울시장의

스캔들 등 정치 사회적 중요 이슈들 역시 코로나19 만큼의 무게감으로 대다수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흔들리는 뉴스들이 연속입니다. 어떤 뉴스매체를 돌아보아도 새로운 희망 또는 기대를 불러일으킬만한 뉴스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의 연속임을 느끼게 됩니다. 뉴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다시한번 거듭 되새겨볼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가중되는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를 이제는 다소 다독여야할 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뉴스는 어디에도 있을 법합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새로운 기대 희망을 전달해줄 수 있는 뉴스를 찾아 보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가 제시하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현실을 이해하고 또한 그 현실을 미디어의 재현되는 방식으로 구성한곤 합니다. 특히 뉴스는 가장 현실적 내용을 전달하는 장르이기에 뉴스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을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블루로 인하여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는 심리적 공포를 작게나마 상쇄시켜줄 수 있는 뉴스기능을 수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뛰어다니면서 수소문하면서 기대와 희망을 담아 전해줄 수 있는 뉴스발굴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 추문갑 위원

- 7월15일, 코로나19로 확진자 발생 상황을 방송하면서 '서울 서초구 소재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 70대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인은 지난 11일과 12일 열린 예배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참석했고 예배 후 바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내용에 대해 시청자게시판에서는 교회에서 감염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감염자가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교회를 수차에 걸쳐 언급했다며 비판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날 보도는 연합뉴스TV이외에 여타 방송과 신문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명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보도되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의 특성상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진자 동선 공개가 불가피할 수도 있고, 그 의도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는 것은 당사자인 사랑의 교회와 교인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 보도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관련 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7월19일 '한국판 뉴딜 친환경에서 해법을 찾다'라는 제목의 연합뉴스TV스페셜 보도는 시의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7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발전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을 때 많은 분들이 디지털 뉴딜은 알겠는데 그린뉴딜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기자동차 등 그린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친환경 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는 늘리고 규제는 혁파해야 한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제시하면서 환경문제에서 비롯된 코로나 위기극복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7월22일 '국내선까지 뛰어보지만 다음달에 고용유지지원금 끝'이라는 제목의 보도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항공업은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특별고용유지지원대상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종업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180일로 제한되어 있어 코로나 초기(1월말)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들은 조만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금년말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업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한 관련기업의 피해 최소화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등 필요한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사한 피해사례에 대한 후속보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허찬행 위원

- 시청자들이 직접 연합뉴스TV에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 중 하나인 시청자 게시판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연합뉴스TV와 상관없는 글들이 도배되고 방치되어 있어, 시청자게시판 관리에 대해 이미 두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 이후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청자게시판에 참고할 만한 시청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관련 피드백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청자게시판의 목적이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을 위한 것이니 만큼 시청자들의 따끔한 질책이나 의견에 답변을 하여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타 방송사 시청자 게시판(지상파 및 지역 민방 등)은 관리자가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참고할 만한 의견들을 예시해보면,

잠시 후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π π . . . . .  
~도록, ~하도록, ~보도록 온통 도록 도록 도록  
누구에게 시키나요?  
그냥 앵커가 하는 것이니까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모셔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깔끔한데

(김현\* 님, 6월 16일)

스마트폰으로 줄그으면서 기사읽어주는데——  
기사가 안보여요 ..  
세모 물결표시 하면서 기사읽어주는데 안보여요 기사 읽으면서 듣고싶은데

(안미\* 님, 7월23일)

윤인지 통역사님 안녕하세요^^

벌써 7월이네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것이 정말 고역이네요ㅠㅠ

7월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ㅠㅠ

뉴스를 봐도 희망적인 것도 없고 답답한 날의 연속이네요~~

아이때문에 저녁에는 티비를 잘 못보지만 윤인지 통역사님의 수어뉴스는 꼭 사수하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도 기대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 코로나 조심하세요~~

(연상\* 님, 7월 18일)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고, 참고할 사항은 개선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 감사나 응원 메시지에는 감사하다는 답변 등 시청자들의 소중한 의견에 적극적으로 답변한다면, 시청자들이 연합뉴스TV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 ▲ 나지수 위원

- 코로나시대 알려주면 좋을 실용정보를 뉴스말미 등에서 알려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비말 마스크 제대로 쓰는법(마스크 안쪽 바깥쪽 구별방법 등) 마스크 제대로 버리는법
- 광고가 지나치게 긴 느낌, 10분이상 광고 18:15경~18:25까지 계속 광고, 채널 돌아감.
- 07월21일 출근길인터뷰 수돗물유출, 이대 박석순교수, 원인분석& 재발방지책, 시의적절한 인터뷰
- 외국인치료비 전액 지원 조정검토: 기존에 실제 투입 비용이 얼마였는지, 지원 범위 변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피상적인 정보만 제공. 보도자료 내용 그대로 옮긴 곳으로 보임. 조금더 취재해서 다른 뉴스와 차별화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면 바램.
- 고용브리핑365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1년 점검. 시의적절. 데이터로 인식차이 보여줌 (상하급자). 원인분석

#### ▲ 서창호 위원

- <7/7 치료사 폭행 인정 자필서 관련 단독보도>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가 폭행을 인정하는 자필 진술서를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한체육회가 늦장 대응하고 모르쇠로 일관하였다는 내용으로 단독보도함.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단순히 가해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에도 책임소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취재, 보도함으로써 알권리 실현, 사회에 대한 감시, 견제 등 언론의 역할을 다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반복되는 폭력,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관련 기관의 부실한 관리, 감독과 대처, 나아가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시청자들이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관련 이슈에 대한 후속 보도가 이어질 필요가 있음.

- <7/10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뉴스속보> 뉴스 속보로 “수색 현장서 시신 1구 발견 ... 신원 확인중” 먼저 보도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 후에 “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후속 보도함. 시청자들에게 신속성과 함께 정확성을 동시에 갖춘 보도를 하여 보도전문채널로서 전문성, 신뢰도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줌.

- <7/14 뉴스포커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보도> 전문가 패널과 함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고소인이 아니라 피해호소자가”라는 표현을 사용함,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함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일부 패널(시사평론가)도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그 밖에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며, 사회에 미칠 파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로 취재, 보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